

나주시, 2차 공공기관·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 역량 결집

빛가람페스티벌서 이틀간 시민 서명운동
정부 공공기관 ‘집적 배치’ 원칙에 부합
한전·켄텍 연계 ‘에너지 밸류체인’ 강점
주택·영재학교 설립 등 정주 여건 탁월
운병대 시장 “국가 균형발전 거점 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5사 통합본사의 빛가람혁신도시 유치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결집하며 혁신도시 제도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빛가람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빛가람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발전5사 통합본사 성공 유치 기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은 정부가 이달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추진 방향에 대응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등 5대 원칙을 제시함에 따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페스티벌’ 행사장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발전5사 통합본사 성공 유치 기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나주시 제공〉

라 지역사회의 유치 의지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나주시는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2차 공공기관 및 발전5사 통합본사, 빛가람혁신도시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우선 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특히 1차 이전 당시 전남·광주의 상생 협력으

로 조성된 대한민국 유일의 ‘광역 공동혁신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6개 핵심 공공기관이 안착해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 분야의 거대한 집적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연구개발, 기술 실증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혁신도시 성공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 역시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를

필드로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등 에너지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에너지 밸류업주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이곳에 발전5사 통합본사까지 자리 잡게 되면 발전부터 송·배전, 전력 거래,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 밸류체인이 완성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즉시 입주 가능한 업무 공간과 클러스터 용지, 이전 기간 종사자를 위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뒷받침할 인프라도 조성됐다.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확대, 켄텍 부설 영재학교 설립 추진 등 교육 여건을 혁신하고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확충하는 등 최적의 정주 환경을 자랑한다.

시는 서명운동의 열기를 바탕으로 이미 운영 중인 2차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을 본격 가동, 전방위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빛가람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라며 “빛가람혁신도시는 1차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 집적 효과와 광역 간 상생 가능성을 입증한 ‘준비된 혁신도시’”라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완도군, 민선 9기 공약 실천 로드맵 구체화

보고회 열어 6대 분야·77개 사업 점검

예산 확보 방안 논의…12월 주민 검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민선 9기 공약 실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김신 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공약 사항 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보고회에서는 민선 9기 군정 목표인 ‘참여 자치 실현! 함께 여는 새로운 완도’를 달성하기 위해 공약 사항 실천 계획을 점검했다.

군은 당초 85개 공약 중 사업 검토를 통해 6대 분야 77개 사업으로 통합·조정했다.

분야별로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 자치 9개 ▲머물고 싶은 정주 도시 9개 ▲매력을 더하는 품격 관광 14개 ▲안심하고 누리는 행복 복지 15개 ▲미래를 여는 혁신 성장 9개 ▲모두가 잘사는 활력 경제 21개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회에서는 각 공약 사업 추진 계획과 연차별 이행 로드맵, 예산 확보 방안, 부서 간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현안의 경우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와 전남광주특별시에 국·시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군은 이달 중 2차 보고회를 열어 공약 실천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오는 12월에는 주민배심원

단 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직접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김신 완도군수는 “민선 9기 공약의 핵심은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완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 수립부터 검증까지 함께하고 전 부서가 하나의 팀이 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아동·청소년 복합공간 ‘강진맘편한센터’ 개관

놀이·돌봄·체험 인프라 18일 문 열어

돌봄 부담 완화 여가 문화 거점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아이와 부모를 위한 새로운 다목적 가족 복합공간이 문을 연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전 연령대 아동의 돌봄과 놀이, 체험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강진맘편한센터’(사진)가 오는 18일 정식 개관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강진 지역은 전전후 실내 활동 공간이 부족으로 인근 도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군은 맘편한센터 조성을 통해 부모의 돌봄 부

담을 덜고 지역 내에서 가족 단위 여가 생활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3개 층 규모인 센터는 연령과 이용 목적에 맞춰 맞춤형으로 공간을 세분화했다. 1층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육아 카페 등으로 꾸며져 부모 간 정보 교류와 휴식의 장이 될 전망이다.

2층은 어린이를 위한 대형 실내 놀이 공간과 가족형 도서 공간으로 조성돼 온 가족이 독서와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청소년 전용 활동·체험 공간인 3층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거점으로 운영된다.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 개관식은 센터의 실질적인 주 이용자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놀이·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맘편한센터가 아이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훌륭한 놀이터가 되고 부모들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박길종 기자

전국 최초 고교생 ‘e-카트 경진’ 영광서 개최

내달 22-23일 영광지식산업센터

총 210여명 참가 조립·경주 대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15일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지역 주력산업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고등학생 대상 ‘e-카트 경진대회’(과학축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영광교육지원

청,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는 오는 10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영광지식산업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대회에는 영광공업고등학교, 담양공고, 순천공고, 순천미래과학고, 여수공고, 전남기술과학고, 전남에너지고 등 7개 학교에서 9개 팀, 총 21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배운 지식을 토대로 직접 조립한 e-카트를 활용해 주행 경주를 펼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11일 참가팀을 대상으로 e-카트의 기본 개념과 구조·작동 원리, 주행 안전 수칙, 실제 주행 실습 등 이론과 실무 사전 교육을 마쳤다.

행사는 단순 속도 경쟁을 넘어, 학생들이 지역 핵심 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체험하고 관련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생생한 실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대회가 학생들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하고 산업에 대한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내실 있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진도국제무형유산컨퍼런스’ 오늘 개막

아시아·태평양 6개국 전문가 참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진도군문화도시센터와 함께 16일부터 18일까지 진도군청 일원에서 ‘2026 진도국제무형유산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살아있는 유산,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6개국 무형유산 전문가와 유네스코 관련 기관 종사자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국의 무형유산 전승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진도군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몽골 국립문화유산원 등 5개 기관 간 국제

교류 협약식이 진행된다.

주요 분과 회의에서는 진도씻김굿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가능성과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18일엔 진도씻김굿, 진도아리랑 등을 잇는 젊은 전승자들이 참여하는 특별 대담이 이어진다.

컨퍼런스가 끝나는 18일부터 20일까지 향토문화회관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2026진도국제무형문화축전’이 이어진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컨퍼런스는 진도의 무형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찾는 자리”라며 “국제적 교류를 바탕으로 진도가 세계 무형유산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 기자

함평군, 국향대전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10만원 이상 참여시 네이버페이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15일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함평을 응원하는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10월16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함평군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기존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혜택에 더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함평군이 아닌 개인이라면 누구나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함평군은 국향대전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 등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함평을 응원하는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해남군, 체육시설 일반인 전용 예약제 도입

배드민턴·테니스장 등 군민 공간 확보

올해 말까지 스포츠파크 사용료 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15일 “군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실내 체육시설에 일반 군민 누구나 쉽게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구역을 별도 확보해 운영한다. 종목별 일반 배정 규모는 배드민턴장 7면 중 2면, 테니스장 6면 중 2면, 정구장 4면 중 1면, 탁구장 11대 중 3대 등이다. 이달 중 예약 시스템 설정을 마치고 본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준공된 해남스포츠파크 축구장의 조기 활성화 지원책도 병행한다. 올해 말까지 스포츠파크 축구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군민은 물론, 관의 축구팀과 전지훈련팀 등 누구나



해남군 우슬국민체육공원 전경. 〈해남군 제공〉

사전 승인을 거치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외부 체육 인구 유치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군은 예약 체계 개편과 무료 개방이 해남읍 등 주요 상권 숙박업소와 음식점 매출 증대로 직결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